고은 불교 대하소설

44

흔들리는 인담

그동안 인담은 충청도 서부지방을 편력하면서 어느덧 느린 방언(方言)에 길들여졌다. 말 몇마디를 하고 나면 하루가 다 저문다는 그 일대의 느린 말은 바로 느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래서 충청도 서산 일대의 중이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동안 그 중의 나이가 스무살에서 서른살이 된 일도 있다하였다. 그 일만 아니라 그런 중의 그림자조차도 아주 느릿느릿한 늙은 구렁이처럼 길어서 해가 진 뒤에도 남아있다 하였다.

이런 환경에 느적느적 익숙한 인담인지라 그의 수행도 그것이 바람직한 경우라면 조급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락없이 게으름뱅이여서 흡사 달팽이 행각(行脚)이었다.

이런 느린 인담이 우녀의 다그치는 정진의 압력 때문에 그의 공부도 원래의 느린 것이 바뀌었다. 충청도 서해안 일대의 느린 말씨와 느린 행동은 그대로 바다 건너 청나라 산동반도 일대에도 건너간 것인지 그곳의 백성들이나 관리 그리고 선객(禪客)들도 게으르기 짝이 없는 만만디(慢慢的)의 나날이라 하였다.

충청도 당진 바닷가 마을의 새벽에는 청나라 산동지방의 바닷가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조차도 아주 길고 긴 느린 소리여서 충청도를 뒤덮고 있다 하였다.

바로 이런 지방의 절 공부도 경론(經論)을 배워도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고 선방의 화두(話頭) 한 꼭지 들어쥐는 일도 그 화두가 글쟁이노릇이어서 조주(趙州)의 무자(無字) 하나가 한 선객에서 확보되려면 무려 10년이 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 붙들었다하면 결코 놓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녀는 그런 느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개탄하였다.

"원! 이런 게으름뱅이로 무슨 놈의 서방정토이겠어? 그 10만억국토를 언제 지나가겠어? 백년을 가고 천년을 가도 제자리에서 10리길도 나갈 수 없을테지."

그녀가 무욕도에 와서 차츰 그녀의 힘을 발휘하게되자 인담의 영향력을 앞서서 이곳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인담의 느린 행동 때문이었다.

그녀가 인담으로부터 배운 태교(太敎)의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보조(普照)의 점수(漸修)를 다 같이 익히다가 이곳 무욕도의 선방에서는 돈오수행이 알맞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도 돈오만이 인담의 느린 공부 따위를 가차없이 멈추게 하여 마치 발바닥과 머리터럭에 불이 난 것 처럼 용맹스러운 공부의 속도를 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녀는 그동안 인담을 은근히 독려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 속에서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그 관계는 우녀의 조종으로 되어있던 것이다.

"스님! 스님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가 스님의 그림자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녀의 말에 인담은 흡족 찼어서 마치 우녀의 품에라도 안긴 것 같은 그윽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

"스님! 우리 수행은 아무래도 담박에 깨치는 공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일체의 게으름이나 느린 것을 타파하는 일이 그 공부의 첫걸음이겠습니다…"

인담은 당돌하기까지 한 이같은 말에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드러워진 수양버들의 그 유연한 가지들이었다. 그녀의 바람이 불어주기만 하면 흔들리는 가지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님."

"네."

인담은 우녀에게 아주 부드러웠다. 그의 말투만은 여전히 느린 채.

"그런데… 왜 중국의 조계산은 6조 혜능의 돈오 가문인데 조선의 전라도 조계산은 6조가문의 돈오가 아닌 보조국사의 점수로 이어져오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못하였다. 한참 뒤였다. 역시 중한 대답도 느린 것이 인담에게는 흉이 아니었다.

"보조국사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만 태교와 보조 두 문중이 서로 팔을 걷어부치고 상대방을 매도함은 이미 수행하는 자의 일이 아닙니다."

실로 물에 다른 물을 탄 것 같은 상거운 대답이었다. 하지만 우녀는 비록 이런 대답이지만 "제가 한 말이 다른 뜻으로 옮겨갑니다"라는 지적으로 답답하였다.

이런 처지의 인담과 우녀였으므로 인담이 그녀를 난데없이 포용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이는 달라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인담으로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녀의 손아귀에 여지없게 들어가고 말았다.

아니, 그는 어느덧 그녀의 지배 아래에 속해진 것이었다. 한 여자로 계안은 것이 아니라 한 정신의 어머니로 계안았단 말인가? 한 여자를 계안아서는 안되는 그의 사정이 한 여자를 한 어머니로 승격시켜서 계안을 개탈을 얻었단 말인가?

어쨌거나 그들은 그런 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는 평상이었으나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인담이 우녀의 제자처럼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우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과현이 이런 우녀의 증상을 살펴보더니 "마치 제가 앓던 것처럼 앓으십니다"라고 인담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녀가 새삼스럽게 무병(巫病)이라도 앓는단 말인가.

무병이라면 그녀는 이곳에 데려오기 이전의 그 광기(狂氣)를 보이던 집없는 처녀시절에 이미 앓았던 것인지 모르거니와 이번에도 그런 증상이라면 그녀의 수행이 그 무당기운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되기도 하였다.

"과현수좌가 돌보는 일을 내가 맡겠오" 라고 인담이 사람들의 눈도 있어서 나서지 않고 있다가 과현의 말을 구실로 삼아 그 자신이 우녀의 방을 드나드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우녀를 자극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일을 공부로 여기고 있었다. 밤중에도 숫제 우녀가 거처하는 방에서 나올줄 몰랐다.

그런 인담에 대해서 과현이나 수원 수월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인담으로서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아예 없었다. 그만큼 그는 지극정성이었던 것이다.

만약 우녀가 병들어 누워있지 않더라도 그는 어떤 그럴싸한 역할을 내세워 우녀와의 밤을 지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간밤의 갑작스런 폭풍우 때문에 사나운 번개가 쳤다. 바람이 빌어지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채 장대비가 캄캄한 밤을 내리 퍼부어댔다. 바람도 우렁찼다. 그래서 바다 전체도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다.

무욕도 바닷가 절사들의 갈대지붕도 파도더미에 덮이기를 좀처럼 멈추지 않는 비바람 때문에 몹시 시달렸다. 급내 대중처소의 지붕이 흠러덩 벗겨지는 사태에 이르러 서너사람이 그 지붕을 복구시키는데 애를 써야 하였다.

무욕도 산꼭대기의 움집 선방은 아예 버락에 맞아서 시커멓게 타버렸다. 그 부근의 늙은 소나무들도 밑동까지 잘려나갔다.

수원이 그 꼭대기 선방에 다녀와서 투덜댔다.

"이 도량에 무슨 벌이 내려진 것인가."

인담은 수원으로부터 버락맞은 움집에 기를 듣고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사람이 죽어가는 판에… 집 한채 없어진 것은 우리 대신으로 그것을 없애준 셈이나 소실댁도 두루 안녕하십니까?"

"예잇… 말씀을 낮춰 주십시요. 스님."

"여기는 반상(班常)이나 귀천(貴賤)이 없는 평등의 도량입니다. 개에게도 부처 성품(佛性)이 있다 없다하는 말을 주고 받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소인배들은 죽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만 말씀하시지요."

"종노릇도… 하기야 종노릇도 보살행인지 몰라."

그때 과현이 두 사람에게 한 마디 던졌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될 생각 없오?"

이 말에 인담이 딱아섰다.

"아니오. 임종지의 길은 산심을 생각한 다면 일을 그렇게 끝고 가서는 안되지요… 어서들 건너가시게."

두 사람은 우녀에게 깊은 경의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정사 넘어의 선차장으로 갔다.

인담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양식이 충분한 것에 저으기 안심하였다. 그는 우녀를 부액하여 그녀의 거처로 갔다.

"나 온몸이 쑤셔댑니다. 바깥바람을 쏘였더니…"

그는 그녀의 몸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정밀한 세공(細工)처럼 주물렀다. 그것은 애무가 아닌 애무였고 안마가 아닌 안마였다. 차라리 그것은 너도 나도 없는 상태의 설산(雪山) 천길 바람에 불어있는 석청(石淸)이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오지 않던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난산(難産)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산의 성공과도 같은 달디 단 기쁨이었다.

우녀는 지극히 담담한데 인담은 지극히 기뻐 어쩔줄 몰라 그의 두 손이 야릇한 미진(微塵)의 지각(地殼)처럼 떨고 있었다.

"본래 공(空)한 것도 없어요. 공연히 색(色)이다, 공이다 하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더 무명(無明)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인담의 입은 열릴 줄 몰랐다. 오직 그의 두 손만이 살아 있었다.

그림 · 조향숙

"본래 공(空)한 것도 없어요. 공연히 색(色)이다, 공이다 하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더 무명(無明)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나 온몸이 쑤셔댑니다 바깥바람을 쏘였더니…"
인담은 우녀의 몸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정밀한 세공처럼 주물렀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은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사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읽어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행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간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은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왔던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토대로 대폭적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쓰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였습니다. 발심 · 수행 · 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 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 · 6613 팩스:(02)586~9078